

가즈초(一町)[니자와카즈(新沢一)] 유적 [가시하라시 가즈초]

가시하라시(檜原市) 가즈초(一町)에 있는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나라현을 대표하는 집락유적이다. 동쪽의 니자와(新沢) 500호분 등 니자와센즈카(新沢千塚) 고분군의 C 구역이 있는 구릉과 서쪽을 북류하는 소가가와(曾我川) 강 사이에 있는 평지부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범위는 남북 약 700m, 동서 약 250m로 상정된다. 동쪽 구릉 상에는 야요이시대 후기 초두의 고지성(高地性)집락인 우에노야마(上の山) 유적이 있고 그 밖에도 소가가와 강의 서쪽 기슭에는 야요이시대 전기의 환호집락인 가와니시네나리가키(川西根成柿) 유적이거나 야요이시대 중기의 방형주구묘군이 펼쳐지는 간논지혼마(観音寺本間) 유적 등이 있다.

가즈초(니자와카즈) 유적은 대정(大正) 4년(1915)에 발견된 이래 많은 연구자가 주목을 해 왔고 발굴조사도 10차를 넘게 이루어졌다. 주목할 만한 자료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야요이시대 중기의 주전자 모양 [水柱形] 토기나 야요이시대 후기의 「토제 거푸집(鑄型外枠)」을 들 수 있다. 주전자 모양 토기는 야요이시대 중기 토기로 아가리(口縁部)의 한쪽 편에 귀때가 있고 어깨 부분에 U자형 손잡이(把手)가 달려 있는데 그 모양 때문에 「주전자 모양 토기」라고 불리고 있다. 높이가 21.9cm, 몸통의 최대 지름이 15cm이다. 아가리 상단에서 몸통 하반부까지 빗살 주름 모양 무늬(櫛描簾狀文), 빗살 짙은 무늬(櫛描刺突文), 물결무늬(波狀文)가 새겨져 있다. 저부(底部)에는 대각(高台)이 붙어 있는데 대각의 투공은 나뭇잎 모양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번갈아 새겼다. 그려진 문양이나 사용된 태토(胎土)로 볼 때 오사카의 가와치(河内)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소화 42년(1967)에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토제 거푸집은 청동기 생산에 관계하는 자료로 나라현에서는 출토 예가 다섯 건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나라 분지 남서부에서 야요이시대의 청동기 생산을 나타내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리고 가즈초 유적은 반달돌칼 [石庖丁]에 사용되는 석재를 봤을 때 요시노가와(吉野川) 강 유역에서 산출되는 결정편암(結晶片岩)을 나라 분지로 유통하기 위한 거점의 하나였다고도 파악할 수 있다. 주전자 모양 토기도 오사카의 가와치 지역에서 운반돼 온 점을 볼 때 야요이시대 중기 이후에 가즈초(니자와카즈) 유적은 교류거점으로서 그리고 청동기 생산지로서 번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